

아파트 수납공간의 양적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 of the Apartment Storage Space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조 교 수 박 영 순

연구조교 박 남 희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Assistant Prof.; **Young Soon Park**

Research Assistant; **Nam Hee Park**

< 목 차 >

I.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 결과

IV. 결 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change of the apartments storage space in Seoul area from 1971 to 1988.

It also attempts to compare the storage space in the apartment with the optimum storage space which is suggested by precedent studies on the storage space.

Content analysis methods were used to analyze 961 apartment floor plan from the booklet of 'Apartment Informa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According to the precedent studies, optimum storage spaces are 3.86~7.72 m² for 33.03~66.06 m² house, 6.21~10.87 m² for 66.07~115.61 m² house, and 14.23~20.31 m² for 115.62~165.15 m² house.

2) It was found out that the storage spaces of the apartments were increased until 1977~80 and decreased after 1980.

3) Comparing the storage space with the optimum standard, most of the apartments have not enough storage space. It offers only 50% of optimum storage space.

4) The percentage of installation of storage space in bedrooms were quite low in general. Specially, bedrooms in small apartment under 66.6 m² and most master

bedrooms didn't have storage spaces.

5) The size of the apartment storage space were variant according to the builder. Only one builder from 8 offered the storage spaces close to the optimum standard, and others didn't seem much care for the storage space.

I. 서 론

서울시의 아파트 설립현황을 보면, 1970년도에는 24,000호이던 것이 1980년도에는 183,800호, 1985년도에는 312,400호로 증가되었으며¹⁾, 도시집중화에 따른 주택난의 해소를 위해 아파트의 설립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추세이다.

집합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공간의 제한성이 높기 때문에 내부공간이 효율적으로 계획되어야만 합리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된다. 특히 수납공간은 적재적소에 적정규모로 계획되어야만 동선을 줄이고 주공간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다.

수납공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장소로 주택설계시 평면상에 할애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생활용품을 수납하는 공간이 주택안에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수납용 가구가 따로 마련되어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피하거나, 생활용품이 주공간을 차지하게 되므로 생활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해진다. 따라서 아파트 수납공간계획에 있어 양적인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성향이 높아감에 따라 수납물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현시점에서 볼때 수납공간의 양적인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곽인숙, 1983; 김용환, 1983; 박혜경, 1985; 이숙영, 1987). 수납공간을 계획하는데 있어 그 적정규모를 산출내고자하는 연구는 아파트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70년대 초부터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김일진, 1972; 이인희, 1975; 건설부, 1976; 이문섭, 1978; 곽인숙, 1983; 황미영, 1985; 허선, 1986). 그러나 실제로

양산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적정규모의 수납공간을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 또 그 규모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파트 수납공간의 양적 변화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1971년 이후 서울시에 설립된 아파트를 년도별로 분석하여 그 수납규모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아파트 계획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를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양적기준을 파악한다.
2. 서울시에 설립된 아파트의 수납공간실태 및 변화추이를 파악한다.
3.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와 실태를 비교분석한다.

II. 연구방법

1.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방법을 이용하여 70년 이후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결과들을 수집, 정리 분석한다.
2. 서울시에 설립된 아파트의 수납공간 실태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방법 중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한다. 내용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경영개발원에서 1986년도에 출간한 '아파트 정보' 책자에 수록된 1,150개의 아파트 평면도를 이용한다.
3. 수납공간의 양적 단위는 평면도의 분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용적이 아닌 면적만을 다루며, 그 단위는 평으로 통일한다.
4.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납공간규모의 단위어

1) 주택랜드북, 대한주택공사, 1987.

〈표 1〉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수납규모

연구자	주택 평수	적정 침실 규모		침실 적정 수납 규모	적정 참고 규모	주택내 전체 수납 규모
김일진 (1972)	15평형			주침실 0.48평		0.94평
이인회 (1975)	17평형	주침실 1인실	2.12평 1.06평	주침실 0.68	0.73	3.03
	26평형	주침실 1인실	3.94평 1.97평	1인실 0.30~0.34평		
건설부 (1976)	20평형	주침실 2인실 1인실	3.72~3.93평 2.73~2.94평 1.97~2.18평	1.21평	1.21평	2.42평 이상
건설부 (1978)	15평형	1인실	1.74평	1인실 0.45평 이상	용도별로 최소 0.18평	
이문섭 (1978)		주침실 2인실 1인실	2.73~3.92평 2.18평 이상 1.91평 이상		0.91평 (4~5인 가족)	
곽인숙 (1983)					0.98평	

*공란은 제시된 사항이 없음을 의미함

있어서는 m^2 는 .303을 곱하여 평으로 환산하고, m^3 로 제시된 경우에는 아파트의 일반적인 천정고인 2.4 m^* 로 나누어 면적을 계산한 후 다시 평으로 환산한다.

5. 분석자료로 사용되는 조사대상 아파트의 범위는 '아파트 정보'에 수록된 평면 중에서 그 사례수가 극히 적은 전용면적 10평 이하와 50평 초과를 제외하고, 10평 초과, 50평 이하를 5평 단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III. 연구결과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납공간의 적정 규모

수납물의 양은 시대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970년 이후에 연구된 결과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선행연구는 6편이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김일진(1972)은 대구를 중심으로 15평 내외의 국민주택 187가구를 대상으로 의류, 침구류의 칫수와 그 양을 측정하여 침실 및 주택 전체의 적정 수납규모를 제시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5평의 주택내에는 6%(0.94평)정도의 수납공간이 할애되어야 하며 주침실의 적정수납규모는 0.48평이라 하였다.

이인회(1975)는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독립주택과 아파트 96세대의 수납 실태를 조사하여 수납규모의 적정치를 제시하였다. 그는 연구결과를 통해 침실의 수납규모는 1인 단 0.34평으로, 잠품을 수납할 창고의 규모는 0.73평으로, 그리고 주택 용적에 대한 수납설비비율은 9.9~14.7%로 제시하였다.

건설부(1976, 1978)에서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시설기준을 제시하면서 20평형에서는 주택 전체에 2.42평 이상의 수납공간이 필요하며 그중 창고는 최소 0.18평 이상이어야함을 제시하였고, 15평형의 경우에는 주침실에 0.45평 이상의 수납공간이 마련되어야함을 제시하였다.

이문섭(1978)은 주거공간계획에 있어 모든 설계를 제시한 연구에서 각 실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참고

*현재 아파트의 천정고는 2.2~2.4 m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김용환(1984); 허선(1987)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반적 천정고인 2.4 m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수납공간의 적정규모를 검토하기 위한 기준

구분 주택평수(평)	침실의 적정 수납규모	방에 대한 침실 수납 공간 비율	적정창고규모	전체수납규모	주택면적에 대한 전체수납면적의 비율
10~20	주침실 0.45~0.68평 1인실 0.34평 이상	13.0% 이상	0.73평	1.17~2.34평	11.7% 이상
20~35	0.68평 이상	11.8% 이상	0.98평	1.88~3.29평	9.4% 이상
35~50	1.42평 이상	13.0% 이상	1.21평	4.31~6.15평	12.3% 이상

〈표 3〉 분석대상 아파트의 설립 연도별, 주택 평수별 분포

주택평수(평) 설립년도	10.01~ 15.00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35.01~ 40.00	40.01~ 45.00	45.01~ 50.00	계
71~72	2	3	1	4	1	5	0	2	18
73~74	3	4	4	1	1	2	3	2	20
75~76	10	12	15	8	11	5	7	5	73
77~78	23	42	60	31	21	15	15	8	215
79~80	13	25	37	16	9	10	13	1	124
81~82	24	20	22	17	5	8	9	6	111
83~84	20	31	19	36	10	26	9	8	159
85~86	11	24	15	64	22	34	19	20	209
87~88	4	12	9	5	0	1	1	0	32
계	110	173	182	182	80	106	76	52	961

는 0.91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박인숙(1983)은 서울시내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00호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창고 규모를 0.98평으로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15~20평 이하인 소형아파트의 경우 부부의 침실은 2.12~3.93평이 제시되었고, 2인실은 2.18~2.94평이, 1인실은 1.06~2.18평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의류와 침구를 보유하는 침실의 적정수납규모로는 주침실의 경우 0.48~1.21평이, 1인실의 경우는 0.30~0.45평이 제시되었다. 또한 비계절용품, 상비품, 청소용품등 잡품을 위한 창고로는 0.73~1.21평이 제시되었고 주택내의 전체수납규모로는 0.94~2.42평이 제시되었다. 중형아파트에 속하는 26평형을 기준으로한 경우에는 주침실이 3.94평, 1인실이 1.97평, 창고의 규모는 1.21평, 주택내 전체수납규모는 3.03평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김일진(1972)의 연구가 대구지역의 국민주택 규모를 중심으로 하였고, 건설부(1976, 1978)는 생활자 중심의 수납물품 조사를 통한 적정수납규모의 제시가 아니고, 이문섭(1978)과 박인숙(1983)은 주택평수를 제시하지 않은 수납규모이다. 따라서 제시된 수치에 있어서도 격차가 매우 크므로 제시된 각 적정수납규모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인희(1975)의 연구에서 산출된 대, 중, 소형아파트의 주택평수별 수납량의 비율*을 대입시켜보면,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수납공간의 기준을 거의 모두 포함하게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체수납공간에 대해서는 이 비율을 적용시키고, 침실 및 창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최소치와 최대치를 적용시켰다. 그 결

*대·중·소형아파트는 36평, 22평, 10평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총 실수납물의 용적을 합산해낸 수치이다.

〈표 4〉 서울시 아파트의 설립년도별, 주택평수별 분포

주택평수(평) 설립년도	15평 미만	15.01~20.00	20.01~30.00	30.01~40.00	40.01~50.00	계
73~74	12,703	58,110	14,757	7,246	2,573	95,389
75~76	15,191	78,035	16,772	9,597	2,711	122,306
77~78	8,342	11,364	10,212	12,753	2,252	44,923
79~80	4,892	3,548	10,067	12,802	2,444	33,753
81~82	8,860	14,034	8,526	5,193	2,264	38,877
83~84	5,625	14,946	14,450	11,663	5,881	52,565
85~86	1,206	1,550	19,016	14,791	5,480	42,043
계	56,819	181,587	93,800	74,045	23,605	429,856

자료 : 서울통계연보, 1973, 1975, 1982, 1987, 서울시.

과는 〈표 2〉와 같다.

2. 서울시 아파트 수납공간 실태

1) 분석 대상 아파트의 설립년도별, 평수별 분포

서울시 아파트 중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사용한 아파트의 설립년도별, 주택 평수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석대상 아파트는 77~78년도에 설립된 사례가 가장 많으나(215 사례) 다른 년도에 설립된 사례도 100호 이상이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71~72년도의 사례와 87~88년도의 사례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는 73~74년도와 85~86년도에 각각 포함시켜 사용하였다. 주택 평수별 분포를 보면 15평~30평 사이가 가장 많은데 이는 서울시 아파트 설립 현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표 4). 사례수가 항목별로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수납공간의 변화추이를 파악해 보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2) 분석대상 아파트의 수납공간 실태

분석대상 아파트의 수납공간을 설립년도별, 주택 평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수납공간의 내역은 침실, 창고, 다용도실로 크게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침실의 수납공간은 모든 방에 설치된 수납공간을 합산한 수치이고, 창고의 경우는 침실 이외에 설치된 수납공간을 합산한 수치이다. 다용도실은 본래 수납만을 목적으로 할애된 공간이 아니나 현

실적으로 수납물의 상당부분이 다용도실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수납공간의 내역에 포함시켰다.

우선, 년도별 수납면적의 변화추이를 아파트 평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15평형에서는 전체수납 면적이 0.65평에서 1.04평으로 꾸준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 10~20평형의 경우에도 0.78평에서 1.29평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평 초과 경우에는 80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수납면적의 평균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77~78년도에 그비율이 최고점이 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그림 1).

이와같이 77~78년도를 기점으로 수납공간이 다시 줄어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70년대초부터 수납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78년도까지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가 점차 아파트를 더 넓게 보이게하려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납공간을 줄여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성향의 증가함에 따라 생활용품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공간 효율성이나 주환경의 쾌적성에 있어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의 연구에서 수납공간이 불충분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다음, 수납공간 변화의 추이를 실별로 구분해서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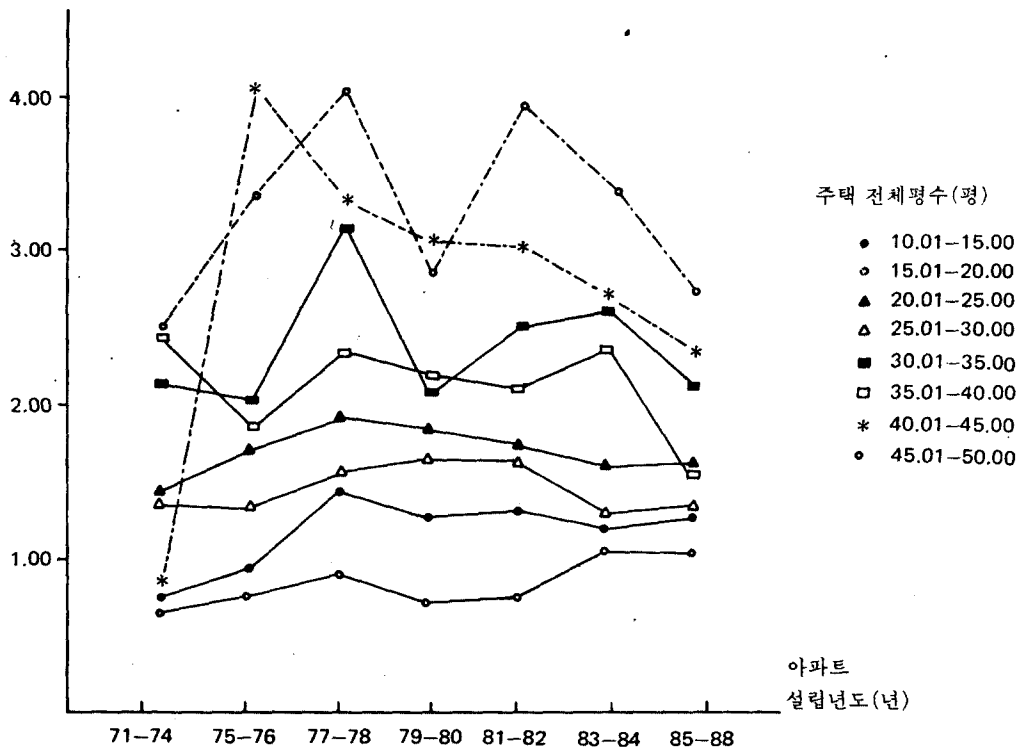
〈표 5〉 분석대상 아파트의 실립년도별, 주택 평수별 수납공간 실태

(N=961)

실립 년도 (사례수)	주택평수(평) 실립수 납공간 (평)	10.00	5.01	20.01	25.01	30.01	35.01	40.01	45.01	수납공간 비율의 평균
		~15.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71~74 (38)	사례수	5	7	5	5	2	7	3	4	
	침실	-	0.15	-	0.27	-	0.43	0.32	1.52	
	창고	-	0.31	0.24	0.73	0.78	0.74	0.45	0.97	
	다용도	0.65	0.32	1.14	0.43	2.65	0.98	-	-	
	계	0.65 (5.20%)	0.78 (4.46%)	1.38 (6.13%)	1.43 (5.20%)	2.43 (7.48%)	2.15 (5.73%)	0.77 (1.81%)	2.49 (5.24%)	1.51 (5.16%)
75~76 (73)	사례수	10	12	15	8	11	5	7	5	
	침실	-	0.16	0.21	0.40	0.37	0.69	1.24	1.23	
	창고	0.06	0.06	0.14	0.21	0.24	0.27	0.23	0.84	
	다용도	0.73	0.75	1.02	1.12	1.27	1.05	2.57	1.32	
	계	0.79 (6.32%)	0.97 (5.54%)	1.37 (6.09%)	1.73 (6.29%)	1.88 (5.78%)	2.01 (5.36%)	4.04 (9.51%)	3.39 (7.14%)	2.02 (6.50%)
77~78 (215)	사례수	23	42	60	31	21	15	15	8	
	침실	0.09	0.19	0.27	0.46	0.78	1.03	1.06	1.42	
	창고	0.07	0.14	0.20	0.30	0.34	0.42	0.46	0.59	
	다용도	0.75	1.12	1.10	1.17	1.23	1.72	1.80	2.03	
	계	0.91 (7.28%)	1.45 (8.29%)	1.57 (6.98%)	1.93 (7.02%)	2.35 (7.23%)	3.17 (8.45%)	3.32 (7.81%)	4.04 (8.51%)	2.34 (7.70%)
79~80 (124)	사례수	13	25	37	16	9	10	13	1	
	침실	0.06	0.11	0.31	0.38	0.42	0.54	1.12	0.75	
	창고	0.16	0.20	0.23	0.34	0.37	0.31	0.48	0.40	
	다용도	0.50	0.98	1.10	1.13	1.40	1.24	1.45	1.68	
	계	0.72 (5.76%)	1.29 (7.37%)	1.64 (7.29%)	1.85 (6.73%)	2.19 (6.74%)	2.10 (5.60%)	3.05 (7.18%)	2.83 (5.96%)	1.96 (6.58%)
81~82 (111)	사례수	24	20	22	17	5	8	9	6	
	침실	0.06	0.14	0.20	0.38	0.25	0.61	0.77	1.62	
	창고	0.12	0.26	0.25	0.34	0.42	0.46	0.69	0.59	
	다용도	0.58	0.91	1.16	1.02	1.44	1.46	1.58	1.76	
	계	0.76 (6.08%)	1.31 (7.49%)	1.61 (7.16%)	1.74 (6.33%)	2.11 (6.49%)	2.53 (6.75%)	3.04 (7.15%)	3.97 (8.36%)	2.13 (6.98%)
83~84 (159)	사례수	20	31	19	36	10	26	9	8	
	침실	0.08	0.09	0.13	0.30	0.89	0.82	0.63	1.52	
	창고	0.26	0.19	0.25	0.29	0.43	0.50	0.50	0.53	
	다용도	0.71	0.92	0.92	1.01	1.06	1.31	1.57	1.42	
	계	1.05 (8.40%)	1.20 (6.86%)	1.30 (5.78%)	1.60 (5.82%)	2.38 (7.32%)	2.63 (7.01%)	2.70 (6.35%)	3.48 (7.33%)	2.04 (6.86%)

85-88 (241)	사례수	15	36	24	69	22	35	20	20	
	침 실	0.09	0.11	0.15	0.25	0.30	0.52	0.59	0.85	
	창 고	0.25	0.36	0.39	0.42	0.44	0.54	0.59	0.62	
	다용도	0.72	0.82	0.82	0.95	0.84	1.07	1.17	1.26	
계	1.04 (8.32%)	1.29 (7.37%)	1.36 (6.04%)	1.62 (5.89%)	1.58 (4.86%)	2.13 (5.68%)	2.35 (5.53%)	2.73 (5.75%)	2.73 (6.18%)	1.76 (6.18%)
전체 수납공간 비율의 평균	0.85 (6.77%)	1.18 (6.77%)	1.46 (6.50%)	1.70 (6.18%)	2.13 (6.56%)	2.39 (6.37%)	2.75 (6.39%)	3.28 (6.90%)	3.28 (6.57%)	1.97 (6.57%)

수납면적평균(평)



(그림 1) 분석대상 아파트의 설립년도별 주택평수별 수납공간면적 추이

퍼보면 다음과 같다. 침실의 경우 10~20평형은 년도별로 거의 변화없이 수납면적 비율이 매우 낮다. 20~30평형은 80년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30~50평형은 78년까지 증가하다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중 45~50평형의 침실 수납면적은 년도별로 거의 변화없이 낮은 평수를 보이고 있다. 창고의 경우를 보면, 10~15평형은 75년까지

창고가 없다가 77년 이후 차츰 그 면적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5평형의 경우에는 0.24평에서 0.39평으로 점차 증가하였으나 20평형 초과에서 75~76년경에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점차 다시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용도실의 경우는 75~76년에 모든 평형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창고의 면적이 이 시기에

급격히 줄어 드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창고의 기능이 다용도실로 상당부분 이전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용도실은 80년까지는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다시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년도별 추이가 통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해 본 결과, R^2 값은 0.0075였다. 즉, 그 설명력은 0.75%밖에 안되어 그다지 의미있는 변화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변화의 추이는 미세하나마 줄어드는 경향으로 beta값은 약-0.087이었다.

3. 수납공간 적정규모와 실태 비교

이상과 같이 변화된 수납공간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적정규모와는 어떻게 부합되는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이인회가 제시한 주택면적에 대한 전체 수납면적의 비율은 36평 : 22평 : 10평에 따라 12.3% : 9.4% : 11.7%였다. 그러나 분석대상 아파트의 비율은 6.18~6.90%의 범위로서 계획된 수납공간은 평균 6.59%에 불과하므로 부족된 수납량은 가구에 의존하거나 주공간에 방치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각 실별로 보면 20평 이하에서는 주침실의 최소 수납공간인 0.34평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20~35평 사이에서도 주침실 적정수납공간 0.68평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77~78년도에만 나타나고 그 이후 다시 감소 되었다. 35~50평 사이의 침실 수납공간에서는 75년 이후 거의 0.68평을 넘고 있는데 85년 이후 다시 감소되었다. 따라서 주택당 침실이 3~6개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침실에 있어 수납공간은 상당히 부족됨을 알 수 있다.

창고의 경우는 최소치 0.73평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대신 0.73평 이상의 다용도실이 거의 모든 평형에 할애되고 있어 다용도실이 창고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5년 이후의 동향은 20평 이하의 아파트에서는 수납면적비율이 비교적 높고 25~35평 사이는 수납면적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중형 이상의 아파트에 있어서도 평수만 넓다고 수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납공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납공간의 총 평수를 보면 20평 이하에서의 최소치 1.17평을 만족시키고 있으나 최대치 2.34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 20~35평형에서는 최소치 1.88평에도 못 미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또한 35~50평형에서는 최소치 4.31평에 전혀 못미치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수납공간에 있어서도 소형보다는 중형아파트의 수납공간이 보다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침실의 수납공간

앞서 <표 5>에서 수납공간 중 창고나 다용도실에서 보다는 침실에 있어서의 수납공간이 크게 부족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침실의 수납면적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것은 침실에 수납면적이 할애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수납공간의 설치에 있어서 동선을 줄이고 공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실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은 각 실내의 수납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침구나 의류를 다른 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므로 각 침실은 적정규모의 수납공간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서울시 아파트를 평수 단위로 구분하여 각 침실별 수납공간의 설치 실태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그 설치율이 매우 낮다.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침실의 수는 20평 이하에서 3개, 20~35평형에서는 4개, 35~50평형에서는 5개가 일반적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침실에 수납공간이 설치된 비율은 매우 낮아 주침실(R_1)의 경우 40평이하는 그 설치율이 5% 미만이다. 40~50평형에서는 그 비율이 15~20%로 높아지나 실제로 작은 공간일수록 침실의 수납공간 즉, 붙박이장이 효율적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두번째 방(R_2)에서는 수납공간 설치율이 비교적 높아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평수가 커질수록 수납공간 설치율이 높아지고 있다. 10~15평형에서는 5.45%에 불과하나 45~50평형에서는 63.46%로 증가한다. 세번째 방(R_3)의 수납공간 설치율은 R_2 보다는 약간 낮으나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R_1 , R_2 와 같이 주택내의 가장 작은방에서는 수납공간 설치율이 R_2 , R_3 보다 더 감소됨을 볼 수 있다. R_1 의 경우에

〈표 6〉 침실의 수납공간 설치 실태

주거 평수 (사레수)	침실 구분 (사 레수)	R ₁				R ₂				R ₃				R ₄				R ₅				R ₆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방면적 평균		수납면적 평균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0.00~15.00 (110)		3.64 (110)	0.30 (1)	8.24 0.01 (110)	0.38 (6)	15.20 5.45 (13)	1.89 (13)	0.00																	
15.01~20.00 (173)		3.88 (173)	0.56 (5)	14.43 2.89 (173)	0.37 (34)	12.71 9.65 (102)	2.04 (102)	13.73 17.65 (2)	1.71 (2)	0.00															
20.01~25.00 (182)		4.56 (182)	0.39 (8)	8.55 4.40 (182)	0.35 (72)	11.51 39.56 (172)	2.29 (172)	13.10 24.42 (9)	1.69 (9)	0.26 (9)	15.38 36.00														
25.01~30.00 (182)		4.94 (182)	0.73 (3)	14.78 1.65 (182)	0.38 (80)	10.80 43.96 (174)	2.80 (174)	12.86 30.46 (53)	1.82 (50)	0.31 (14)	17.03 28.00	1.80 (1)	0.07												
30.01~35.00 (80)		5.14 (80)	0.51 (4)	9.92 5.00 (80)	0.41 (34)	10.50 42.50 (80)	3.41 (80)	11.14 42.50 (70)	2.32 (70)	0.38 (27)	16.36 38.57	1.14 (9)	0.26 (1)	22.81 11.11											
35.01~40.00 (106)		5.60 (106)	0.87 (5)	15.54 3.13 (106)	0.52 (61)	11.90 57.55 (106)	3.85 (106)	10.91 41.51 (101)	2.89 (101)	0.32 (47)	11.07 46.54	1.75 (21)	0.24 (5)	13.71 23.81	2.03 (2)										0.00
40.01~45.00 (76)		6.13 (76)	1.11 (11)	18.12 14.47 (76)	0.52 (33)	11.09 43.42 (76)	4.06 (76)	11.33 47.37 (75)	3.12 (75)	0.34 (45)	10.90 60.00	1.99 (44)	0.30 (13)	15.08 29.55	1.96 (1)										0.00
45.01~50.00 (52)		6.34 (52)	0.77 (11)	12.15 21.15 (52)	0.60 (33)	12.00 63.64 (52)	4.26 (52)	11.50 01.54	3.48 (52)	0.36 (30)	10.34 57.69	2.45 (42)	0.47 (17)	19.18 40.48	1.85 (6)										18.72 16.67

수납공간 설치율이 현저히 낮은 것은 혼수장롱등 수납가구에 대한 집념이 아직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작은 평수에서는 이동식 수납가구보다는 고정식 수납공간의 설치가 보다 효율적임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침실의 규모는 주침실(R_1)의 경우 최소 3.64평, 최고 6.34평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주침실의 적정규모 2.12~3.93평을 크게 웃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주침실이 취침 이외에 다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우리나라 생활양식의 영향과 이에 따른 실의 규모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침실 수납공간의 규모는 실 자체가 큰 관계로 수납공간이 계획될 경우에는 자연히 충분한 공간이 할애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주침실인 R_1 의 경우 주침실의 적정수납규모로 제시된 0.34~0.64평을 넘고 있다. 침실규모에 대한 수납공간비율을 살펴보면 10~20, 20~35, 35~50평형에서의 비율이 이인희(1975)의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13%, 11.8%, 13%에 비교적 근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R_2 나 R_3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침실의 수납공간은 설치된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그 면적이 적정치수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최재순(1985)* 연구결과³⁾에서 나타나듯이 수납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주로 수납용가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생활용품의 정리정돈에 의한 질서화의 상태가 저하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5. 아파트 건설업체별 수납공간 규모

아파트 생산이 가속화된 1970년 이후 모든 주택은 본격적인 대량생산체제하에 놓이게 되었고, 1980년 이후로는 아파트의 생산량이 단독주택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량생산체제하에서는 거주자의 개인적인 요구가 생산자에게 전달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주생활 만족도는 아파트 생산자의 생활자에 대한 관심이나 설계사의 지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아파트의 수납공간규모가 건설업체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아파트의 건설업체는 100여군데가 넘었는데 이중 건설사세가 30이상인 업체만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 건설업체는 라이프주택, 삼익주택, 삼호주택, 서울시, 신동아건설, 주택공사, 한신공영, 한양주택등 8개업체가 선정되었고 설립 사례수는 최하 30호에서 최고 136호이다.

우선 수납공간의 총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아파트 건설업체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라이프주택이 20.98평으로 가장 높고, 신동아건설이 19.15평, 한양주택은 16.14평으로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다. 가장 낮은 경우는 주택공사가 13.21평, 서울시가 13.97평으로 나타나 있고, 나머지 업체는 14.65~14.99평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 주택공사나 서울시가 건설한 아파트의 수납면적이 이와 같이 협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서민층을 위한 아파트를싼 가격에 공급해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입주자의 싼가격보다는 거주기간동안의 만족도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납공간을 할애된 내역별로 비교해보면, 침실에 할애된 수납공간은 신동아건설이 6.11평으로 가장 높고, 라이프주택이 5.97평, 한양주택이 4.42평 순이고, 주택공사는 1.67평으로 가장 낮고 서울시는 2.07평으로 다음 순이다. 따라서 침실수납공간 규모의 순은 전체규모의 순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창고의 수납규모를 보면 주택공사가 3.84평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시 3.43평, 한양주택 3.35평 순이다. 창고의 수납규모가 가장 작은 경우는 삼호주택 2.08평이며, 다음은 신동아건설 2.82평, 한신공영 2.9평의 순이다. 따라서 침실의 수납규모와 거의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다용도실의 규모를 보면 라이프주택이 11.78평으로 가장 크고, 다음은 신동아건설 10.22평, 삼호주택 9.25평의 순이다. 그리고 삼익주택이 7.17평으로 가장 작고, 다음은 서울시 7.65평, 한신공영이 7.85평의 순이다. 따라서 다용도실의 규모는 전체규모

*崔在順, 谷口汎邦, 生活用品から見た公社住宅の空間利用實態と秩序化の問題に, 日本建築學大會學術講演梗概集, 1988, 10.

<표 7> 아파트 건설업체별 수납공간 규모

(N=606)

건설업체 (사례수)	주택별 수납 공간	주택면적(평)								계
		10.00 ~15.00	15.01 ~20.00	20.01 ~25.00	25.01 ~30.00	30.01 ~35.00	35.01 ~40.00	40.01 ~45.00	45.01 ~50.00	
라이프 주택 (60)	사례수	1	6	13	9	5	13	10	3	60
	침 실		0.33	0.44	0.84	0.91	0.93	1.21	1.31	5.97
	창 고	0.36	0.24	0.16	0.37	0.40	0.42	0.52	0.76	3.23
	다용도		1.02	1.39	1.39	1.49	1.54	2.29	2.66	11.78
	계	1.36 (2.88%)	1.59 (9.09%)	1.99 (8.84%)	2.60 (9.95%)	2.80 (8.62%)	2.89 (7.91%)	4.02 (9.46%)	4.43 (9.96%)	20.98
삼익주택 (61)	사례수	7	8	9	10	8	6	8	5	61
	침 실		0.38	0.43	0.49	0.63	0.83	0.44	1.19	4.39
	창 고	0.22	0.29	0.23	0.31	0.30	0.73	0.59	0.42	3.09
	다용도	0.24	1.29	0.84	1.17	0.74	1.01	1.31	0.57	7.17
	계	0.46 (3.68%)	1.96 (11.2%)	1.50 (6.66%)	1.97 (7.16%)	1.67 (5.14%)	2.57 (6.85%)	2.34 (5.51%)	2.18 (4.59%)	14.65
삼호주택 (63)	사례수	3	11	19	13	5	6	4	2	63
	침 실				0.06	0.06	0.64	1.43	1.37	3.56
	창 고		0.36	0.22	0.20	0.21	0.24	0.43	0.42	2.08
	다용도		0.85	0.98	1.11	1.56	1.37	1.64	1.74	9.25
	계		1.21 (6.91%)	1.30 (5.78%)	1.37 (4.98%)	1.83 (5.63%)	2.25 (6.00%)	3.50 (8.23%)	3.53 (7.43%)	14.99
서울시 (146)	사례수	14	24	9	39	14	19	15	12	146
	침 실	0.11	0.07	0.03	0.23	0.22	0.30	0.53	0.58	2.07
	창 고	0.13	0.22	0.40	0.44	0.46	0.59	0.58	0.61	3.43
	다용도	0.58	0.76	1.00	0.93	0.99	1.11	1.13	1.15	7.65
	계	1.82 (6.56%)	1.05 (6.00%)	1.43 (6.36%)	1.60 (5.82%)	1.67 (5.14%)	2.00 (5.33%)	2.24 (5.27%)	2.34 (4.93%)	13.15
신동아 건설 (30)	사례수	3	7	5	4	1	5	2	3	30
	침 실		0.20	0.32	0.29	0.91	1.03	2.03	1.33	6.11
	창 고	0.23	0.34	0.30	0.48	0.39	0.37	0.30	0.41	2.82
	다용도	1.01	1.06	1.24	0.89	0.54	1.85	1.96	1.67	10.22
	계	1.24 (9.92%)	1.60 (9.14%)	1.86 (8.27%)	1.66 (6.04%)	1.84 (5.66%)	3.25 (8.67%)	4.29 (10.09%)	3.41 (7.18%)	19.15
주택공사 (136)	사례수	41	40	37	10	4	1	1	2	136
	침 실	0.03	0.04	0.20	0.17	0.15	0.45	0.63		1.67
	창 고	0.14	0.19	0.14	0.38	0.71	0.65		1.63	3.84
	다용도	0.95	0.85	1.18	0.87	2.23	0.62	1.24		7.94
	계	1.12 (8.96%)	1.08 (6.17%)	1.52 (6.76%)	1.42 (5.16%)	3.09 (9.51%)	1.72 (4.58%)	1.87 (4.40%)	1.63 (3.43%)	13.45

한신공영 (56)	사례수	6	7	5	15	9	9	4	1	56
	침실		0.06	0.21	0.18	0.61	0.50	0.72	0.75	3.03
	창고	0.16	0.34	0.41	0.40	0.37	0.40	0.42	0.40	2.90
	다용도	0.03	1.25	0.74	1.08	1.30	1.19	1.58	1.68	8.85
계	0.19 (1.47%)	1.65 (9.43%)	1.36 (6.04%)	1.66 (6.04%)	2.28 (7.02%)	2.09 (5.57%)	2.72 (6.40%)	2.83 (5.96%)		14.78
한양주택 (54)	사례수	2	6	9	11	7	8	6	5	54
	침실		0.23	0.27	0.33	0.77	0.61	0.69	1.52	4.42
	창고	0.35	0.31	0.30	0.28	0.41	0.58	0.43	0.69	3.35
	다용도		0.76	0.94	1.01	1.21	1.35	1.35	1.86	8.48
계	0.35 (2.80%)	1.30 (7.43%)	1.51 (6.71%)	1.62 (5.89%)	2.38 (7.32%)	2.54 (6.77%)	2.47 (5.81%)	4.07 (8.57%)		16.24

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택규모에 대한 수납공간의 비율을 각 업체별로 살펴보면, 라이프주택은 10~15평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평수에서 7.71% 이상의 비교적 높은 수납비율을 나타냈고, 삼익주택은 30평형 이하에서 모든 평수에서 상당히 낮은 수납공간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대체로 낮은 비율이나 10~15평형에서는 6.56%의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신동아건설도 모든 평수에서 고루 높은 비율을 보여 수납공간에 대한 적정규모를 제시하려는 기준이 있음을 암시해준다.

주택공사는 35평 이하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납비율을 보이거나 35평 초과에서는 그 사례도 매우 적고 수납공간 할당이 매우 미흡하다. 한신공영도 15~20평형에서 가장 높은 수납공간비율을 보이고 나머지 평수에서도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한편 한양주택은 45~50평형에서 8.57%의 수납비율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중간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아파트 건설업체별로 수납공간의 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수납규모는 커도 대체로 어느 곳에 얼마나 큰 수납공간이 할애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거의 없어 보이며, 수납공간비율이 매우 불안정한 업체일수록 비계획적으로 적당히 남는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은 수납공간의 면적이 주택평수별로 모두 적정규모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겠고, 그 배치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IV. 결 론

1.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를 제시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10~20평형의 경우 주침실에 0.45~0.68평, 1인실에 0.34평, 창고는 0.73평, 전체적으로는 1.17~2.34평이 적정 수납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20~30평형의 경우에는 주침실에 0.68평 이상, 창고는 0.98평, 전체적으로는 1.88~3.29평이 적정 수납규모였다. 그리고 35~50평형의 경우에는 주침실에 1.42평 이상, 창고는 1.21평, 전체적으로는 4.31~6.15평이 적정 수납규모임을 알 수 있다.

2. 서울시 아파트 수납공간은 대체로 77~78년까지 증가하였다가 80년 이후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주택평수를 더 넓게 보이게 하는 상업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경제성장과 소비성향의 증가에 따른 수납물의 증가를 생각할 때 시정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파악된다.

3.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된 수납공간의 적정기준에 비교해 볼 때 현재 공급되는 아파트의 수납공간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수납물의 약 50% 정도는 이동식 수납가구에 의존해야하거나 생활공간 내에 방치되므로써 주거성이 침해되는 현상으로 해석되므로, 공간효율성과 주거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평면 계획시에 적정규모의 수납공간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창고의 규모는 적정

규모에 크게 못미치고 있고 그대신 다용도실이 이를 대치해주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용도실의 적정규모가 산출되어 합리적인 창고의 규모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침실의 수납공간 설치 비율은 10~20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저조하고, 특히 주침실의 경우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 생활방식이 주침실인 안방에서 혼수장, 이불장등 반드시 장롱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20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 수납공간 설치비율이 더욱 낮은 것은 작은 방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크게 보이게하고 주택 단가를 줄이려는 건설업체의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작은 평수의 아파트일수록 공간사용을 효율적으로 해야함을 생각할때, 수납공간의 설치비율이 매우 낮은 10~20평형의 소형아파트에서는 가구의 사용보다는 수납공간의 설치가 더욱 필수적이라고 본다.

5. 아파트 건설업체별 수납공간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만이 모든 평수에 있어 적정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업체들은 평수별로, 수납공간 종류별로 적정규모에 대한 기준이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전체수납규모는 커도 그배분이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아파트 평면 계획시 수납공간을 할애함에 있어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남는 공간을 활용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아파트 건설업체는 새로운 아파트 계획시 수납공간의 사용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현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박인숙, "아파트 수납공간의 적정규모 설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2.
- 건설부, "국민주택의 적정규모와 부대복리시설기준 연구," 1976.
- _____,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시설기준에 관한 연구," 1978.
- 김국연, "침실공간의 적정 스케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1981, 2.
- 김용환,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4, 9.
- 김일진, "주거계획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고찰," 영남대논문집 5호, 1971.
- _____, "국민주택에 있어서 수납공간에 대한 고찰," 영남대논문집 6호, 1972.
- 김종인, "가구가용면에서 본 생활공간의 계획," 대한건축학회지 16권 48호 1972.
- 송규품, "쌍아파트 수납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산업대학원, 1987.
- 송중석, "새로운 표준주거설계의 개발과 그 체계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6호, 1975.
- 이문섭, "주거공간계획과 모듈설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 이인희, "우리나라 도시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75.
- 조성기, "저소득층용 공동주택의 수납공간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권 56호, 1974.
- 허 선, "APT주거공간의 Built-In-Furniture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1987.
- 황미영, "아파트의 안방용 옷장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6.